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타난 인구 관련 내용

옥 일 남(서원대학교 부교수)*

《요약》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타난 인구 관련 영역의 내용을 분석하여 오늘날 인구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 발행된 사회·문화 교과서 3종을 대상으로, 인구 관련 영역인 인구 변천, 가족 제도, 성 불평등 단원을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여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고 복지 수준의 위협을 맞이하게 된 시점에서 인구 교육의 필요성은 높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인구 교육을 위한 별도의 단위 설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인구 교육을 위한 대단원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고 각 단원의 성격에 맞추어 내용이 각각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인구 교육을 위한 일관적인 목표에 따라 통합되어 기술되고 있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인구 변천 단위에서는 세계적, 국가적 규모의 인구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현상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가족 제도 단위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에 부담이 되는 핵가족 현상의 보편화 추세를 소개하고 있었다. 성 불평등 단위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부담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인구 변천의 기술에서는, 거시적, 국가적 접근 위주의 인구 교육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지만, 출산과 관련이 깊은 개인이나 가정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나 가치 판단 과정은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출산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방면의 제도적 지원과 복지 증진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다뤄지고 있어, 개별 가정의 의사결정과 노력의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개별 가정의 행복과 직결된 출산에 대한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은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인구 교육 차원에서 인구 내용 외에도 가족이나 양성 평등 내용이 적절히 구조화되어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구 교육, 사회·문화 교과서, 인구 변천, 가족, 양성 평등

* 제1저자 및 교신 저자, inok@seowon.ac.kr

I. 들어가기

현재 세계의 인구는 71억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류는 대륙별, 국가별로 다양한 인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특정 국가들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증가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들에서는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수는 많을 경우도 곤란하지만 부족할 경우에도 문제가 야기된다. 이는 인구가 바로 그 나라의 발전과 연결되는 복합적인 사회적 맥락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구는 그 나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동안 국가가 개입하여 정책적으로 통제하려고 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부터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가족계획 사업을 전개하여 인구 성장 억제에 중점을 두며 통제를 해 왔다. 60년에 6.0이던 합계출산율이 85년에는 1.7로 떨어지고 인구증가율은 2.84에서 1.02로 감소하여 급속한 출산력의 저하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90년대에는 인구 증가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권태환 외, 2008, pp. 351-352). 그러나 이제는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해치고 복지 증진에도 역행할 정도로 인구 부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구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인구 교육은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미래의 자신들의 가정이나 지역, 국가의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의 학생들은 곧 성인이 되어 재생산 능력을 통해 미래의 인구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인구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의 부모가 될 학생들이 인구 교육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체계를 통한 인구 교육은 집단 내에서 이러한 태도와 유능성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Yadav, 1999, p. 63). 그리하여 인구 교육은 가족계획, 성 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과 관련성을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과목의 교과서에서 인구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인구 교육이 제시되어 있는 사회과 과목 중 ‘사회·문화’ 과목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으며, 2013학년도 수능에서의 선택율도 64.77%로 사회탐구 과목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를 학습하는 학생들은 곧 성인의 단계에 들어서는 시기이므로 이들은 인구 교육의 중요한 대상자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구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학습하는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타난 인구 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인구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 조절 문제가 단지 국가적 지원이나 캠페인만으로는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와 맞

물려 의식 전환 등 가치관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구 변천 내용뿐 아니라 양성 평등이나 가족 단위 내의 가치관 영역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역은 어느 과목보다 사회·문화의 교과서에 특히 잘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드러난 현재의 인구 교육의 실태와 성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인구 상황에 적합한 인구 교육의 측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인구와 관련 영역의 내용과 현황

1. 인구 교육의 의미와 내용

인구 교육의 개념은 1935년 스웨덴에서 출현하였는데, 당시 인구 감소 현상이 야기할 부정적 결과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교육적 의도를 담은 캠페인을 전개하여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인구의 문제가 학교의 공식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쳐 '인구 교육'의 차원으로 부각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나라의 인구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데에 있다. 그 후 70년대 전후하여 인도나 필리핀, 한국 등에서도 인구 교육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UNESCO에서도 아시아의 인구와 가족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했으며, 또한 국가적 인구 교육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Pandey, 1999, pp. 2-3).

1970년 아시아의 UNESCO 교육 지역 기구에서 '인구 교육'의 의미를 규정하였다. 인구 교육은 인구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나 행동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가정이나 지역, 국가, 세계의 인구 상황의 학습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그 뒤 실행 프로그램에서는 재개념화를 하고 있는데, 인구와 개발의 상호 관계, 인구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인구 안정화를 위한 조건들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고, 인구와 개발 이슈에 관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인 과정이라고 규정하며 정보를 잘 알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Yadav, 1999, p. 68).

이를 좀 더 정리하여 1978년 UNESCO는 인구 교육이란 “학생들이 자신들이나 가정, 지역, 사회 및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사건 및 이슈에 대해 정보를 잘 알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UNESCO, 1978a, p. 40).

이와 같이 인구 교육은 인구와 지속가능한 개발 간의 관계를 잘 인식하게 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인구 적정화를 위한 기본 조건을 비판적으로 이해시키고, 인구와 개발 이슈에 있어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인구 교육은 단지 인구 현상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인구 교육뿐 아니라 개발 교육, 환경 교육, 성

교육, 가정생활 교육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 교육은 인구와 지속가능한 개발, 성 평등과 여성의 권력의 공평, 청소년의 건강, 가족, 사회경제적 요인과 삶의 질, 인구 분포와 도시화와 이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Yadav, 1999, p. 69).

또한 사회과의 목표와 성격에 비추어 인구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해 볼 수 있다. NCSS에서 제시하는 10가지의 주요한 스트랜드에 따라 인구 교육의 주요한 문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Moore, 2008, pp. 158-159).

- ① 문화
 - 인구 통제 방법은 도덕적인가?
 - 많은 나라에서 왜 대가족들이 가치 있게 평가되는가?
- ② 시간, 계속성, 변화
 - 세계의 인구는 왜 극적으로 증가하였는가?
- ③ 사람, 장소, 환경
 - 아시아의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왜 유럽의 인구는 감소하는가?
 -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인구 경향에서 지리적 요소(위치, 기후, 토양, 자원 등)의 영향을 분석하라.
- ⑤ 개인, 집단, 제도
 - 개발도상국의 인구 경향에 대한 UN의 입장을 평가해 보라.
 - 미국 가족계획 연맹이나 카톨릭 교회와 같은 제도나 단체가 인구의 경향이나 도덕성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⑥ 권력, 권위, 통치
 - 정부는 가족계획에 관여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또는 왜 해서는 안되는가?
- ⑦ 생산, 분배, 소비
 - 도시 지역보다 왜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지는가?
 - 인구의 크기, 연령 구조, 경제 개발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⑧ 과학, 기술, 사회
 - 어떤 분야의 과학의 발전이 수명의 증대에 기여했는가?
- ⑩ 지구적 관계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회과의 핵심 스트랜드와 관련된 인구 교육의 문제를 구성한 것을 살펴보면, 인구 통제 방법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 대가족의 가치, 인구 성장의 역사, 인구 증가의 배경, 인구 감소의 배경, 인구 경향과 지리적 요인 간의 관계, 개발도상국의 인구 경향에 대한 UN의 입장, 인구 경향에 대한 제도적 기구의 영향력, 가족계획에 대한 정부의 관여의 정당성, 시골 지역의 자녀 수, 인구의 크기 및 구조와 경제 개발과의 관계, 과학 기술의 발전과 수명 증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관계의 본질 등이 있다. 이러한 인구 관련 주제들은 직접적으로 인구 현상을 분석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구 통제 방법의 도덕성, 대가족의 가치, 정부의 가족계획 관여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요하는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교육의 영역은 비단 사회과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학, 기술, 수학, 인문학 등과도 관련성을 가지므로, 사회과학의 수업 설계 시에 이러한 인접 학문을 융합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Moore, 2008, p. 156).

2. 인구와 관련 영역 연구의 현황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구 교육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 교육의 목표나 내용 요소를 살펴본 연구, 교과서를 분석하고 인구 교육의 내용을 살펴본 연구, 최근에 나타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등이 있다.

먼저, 인구 교육의 목표를 살펴본 연구 사례를 보면, 인구 교육의 목표로 인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인간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행동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본 경우가 있다(박용현, 1986; 김태현 외, 2006, p. 239에서 재인용).

반면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의 목표를 인간 존중(인권, 평등), 인구(인구 변동, 저출산, 고령화), 가족(출산, 양육, 가족의 역할 등), 복지(출산·양육 지원, 고령자 지원, 직업 등)로 나누어 설정하기도 하였다(윤인경, 2007). 이점에서 인구 교육의 영역이 비단 인구 관련 지식 영역뿐 아니라 가치관과 관련이 큰 인권, 복지, 가족의 영역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이러한 목표 설정에 따라 내용 영역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인구 교육의 영역을 지식 영역, 기능 영역, 가치 및 태도 영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인구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을 통합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태현 외, 2001; 한세롭, 2012; 이미란 외, 2008; 임인명, 2011; 윤인경, 2011; 한세롭, 2012 등). 학교 인구 교육 교재의 등장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자체의 변화 과정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양성 평등 등의 주제들도 주요한 관련 영역으로 통합되어 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상미, 2011; 이미란 외, 200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인구 관련 영역의 통합 경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인구 영역 외에 인구 관련 영역으로 가족이나 양성 평등 영역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셋째로, 교과서에 나타난 인구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자.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인구 교육 내용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도시와 촌락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중심의 구성과 인구 교육의 정책 지향과 관련된 가치 지향성이 두드러졌으며, 지역과 국가 차원의 관점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관점은 다뤄지지 못한다고 보았다(박윤경, 2012). 이러한 관점은 임인명(2011)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강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치관 교육 부분의 언급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인구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성장 중심의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노인 복지 비용 증가의 우려를 드러내는 반면, 대책은 복지 중심의 관점으로 노인 복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여 서로 상이한 관점이라고 보았다(설규주, 2013). 고등학교 사회과 인구 교육 내용 변화를 고찰한 연구에 의하면 제6차 시기에는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 외에 사회, 환경, 경제, 가족 등 다양한 사회 현상과의 관계를 다루고, 소자녀관을 강조하고 출생률을 낮추려는 기술이 늘어났다는 것이다(김태현 외, 2001, pp. 151-152).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고령화 교육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노인 빈곤과 노인 복지를 다뤄 노인 직업, 노년기 준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최만식 외, 2012). 그리하여 노인교육을 위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요소들이 제시되기도 한다(김진한, 2007). 또한 한국의 고령화 사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높은 교육비가 저출산으로 이어져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읽혀지기도 한다는 견해도 있다(정순돌 외, 2011).

한편, 도덕, 사회, 기술·가정 교과 3영역의 교과서를 살펴보았을 때, 저출산 문제 영역은 사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고, 가족의 영역은 도덕과 사회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출산과 양육 영역은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윤인경, 2011). 인구 교육의 내용이 다양한 과목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인구 교육을 위해서는 인구, 가족, 평등의 문제가 통합이 이루어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과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인구 문제의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의 인구 교육 개선 방안을 보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의 사회 부담 증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고령화 문제가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되게끔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체계적 접근을 통해 단순한 인구 현상의 내용 전달 차원을 넘어서 사회 현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김태현 외, 2006).

더 나아가 학교 인구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와 외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인구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자료와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유종열, 2012). 또한 초·중학생용 인구 교육 교재를 개발해야 하며, 교사 대상 직무 연수나 인구 교육 교과연구회에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등의 다차원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인구 교육은 전 교과와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가치관 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김태현, 2008).

또한 저출산 현상이 야기할 미래 사회의 변화와 관련한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과 더불어, 저출산 관련 정책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조영태 외, 2012). 그리하여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 양성 평등 사회문화 조성 등의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박미혜, 2006).

이와 같이 인구 교육의 차원은 인구 분포의 경향과 그 자체가 갖는 내용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노력 외에도 사회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인구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 교육은 비단 인구 현상 자체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 출산과 관련이 깊은 가족 제도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들어 나타난 한국 가족의 변화 요인으로는 사회적 요인(산업화, 도시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가족 가치 요인(결혼 및 자녀 선택관, 장남 위주 부모 부양관에서 자녀 공동 책임으로 변화, 부부 관계 가치관 변화) 등을 들 수 있다(최연실, 2004). 이로 인해 가족 규모 축소, 핵가족 증대, 비전형적 가족 형태 등이 나타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초혼 연령 상승, 독신 및 미혼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맥락은 인구 변동 등을 포함하는 인구 교육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과서에 기술된 가족에 대한 내용 중에는 가족의 다양한 형태나 자녀 수의 분포에 대한 연구가 있다(서재천, 2005; 김향숙 외, 2009). 가족의 내용을 시대 흐름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들도 나타나는데(이현지, 2005; 강운선, 2010), 사회·문화 교과서의 가족 문화 영역을 보면, 현대 사회의 가족의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이 건강한 가족의 주체라는 내용이 빠져 있고,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문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이현지, 2005). 또한, 사회·문화 교과서의 가족 단원의 가족 문제는 노인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이혼 문제 등에 한정되어 있어, 가족 내 폭력이나 성차별 문제 등은 다루이지 않고 있으며, 핵가족화를 가족 문제의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강운선, 2010).

이와 같이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 내의 특성과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출산과 관련된 인구 분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 내의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 변화 과정 속에서 인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내 구성원인 부부 간의 관계와 공평성의 문제는 가족 내 문제를 구성하는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므로 이 또한 인구 교육의 중요한 기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Ⅲ. 분석 대상 및 방법

1. 교육과정에 나타난 인구 및 관련 내용

인구 교육의 범위나 내용 영역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이 아니라, 출산에 영향을 주는 가족 제도나 양성 평등 부분의 성 평등 문제 등도 인구 교육의 주요한 커리큘럼의 영역으로 제공하고 있는 연구들(UNESCO, 1978a; Pandey, 1999; 김태현 외, 2001, 2006; 이미란 외, 2008; 임인명, 2011; 한세롬, 2011; 이상미, 2011; 윤인경, 2011, 2012)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 교과서 내 인구 및 관련 영역을 통합하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 교육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들을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문화’ 과목에서 살펴보면,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단위 내 〈인구 변천 과정〉이 있고,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단위 내 〈결혼과 가족〉, 〈가족 문제〉가 있으며,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위 내 〈성 불평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 요소의 학업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 ⑤ 성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5)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 ② 가족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를 살펴본다.
③ 가족 문제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 ⑤ 인구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이와 같은 학업성취 수준의 기술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구 교육 관련 내용에서는 양성 평등 문제, 가족과 가족 문제, 인구 문제 등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접근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저술된 사회·문화 교과서의 내용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인구 및 관련 내용의 기술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2. 교과서의 분석 대상 및 분석 준거

가. 사회·문화 교과서의 분석 대상

2013년 현재 사용되는 사회·문화 교과서 3종의 인구 관련 단원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이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대상(총 3권)

기호	분석 단위		저자(출판사)
A	4. 사회 불평등의 여러 형태 ② 성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pp.152-155 (4쪽)	구정화 외 4인 (천재교육) (2012, 전체 245쪽 중 15쪽)
	2. 가족 제도 ① 가족이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 ② 우리 사회에는 어떤 형태의 가족들이 있을까? ③ 가족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pp.174-181 (8쪽)	
	2.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③ 인구 변천으로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pp.225-227 (3쪽)	

기호	분석 단위		저자(출판사)
B	2. 사회 불평등 문제와 해결 방안 ② 성 불평등 문제	pp.152-154 (3쪽)	박선웅 외 5인 (금성) (2012, 전체 285쪽 중 16쪽)
	2. 가족 제도와 교육 제도 ① 가족의 의미와 형태 ② 가족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pp.184-191 (8쪽)	
	2.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③ 인구 변천과 인구 문제	pp.245-249 (5쪽)	
C	2. 사회 불평등 현상과 해결 방안 ② 성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은?	pp.161-166 (6쪽)	김영순 외 4인 (교학사) (2012, 전체 296쪽 중 19쪽)
	1. 사회 제도와 가족 제도 ② 가족의 의미와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pp.193-199 (7쪽)	
	2. 사회 변동의 양상 ③ 인구 변천에 따라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까?	pp.250-255 (6쪽)	

나. 분석 방법 및 분석 준거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인구 교육을 위한 대단원이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인구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위들을 탐색하였는데, 인구 문제, 가족 제도, 양성 평등 등의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위 영역을 분석 준거로 삼아 각 하위 내용 영역의 준거를 교과서 맥락과 관련하여 <표 2>와 같이 추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단위들의 맥락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인구 및 관련 영역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질적으로 내용을 기술해 나갈 것이다. 사회·문화 교과서에서의 인구 교육 내용은 지식 중심으로 인구 변천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기도 하나, 인구 관련 가치관 형성과 관련한 양성 평등 현상이나 가족관 등 가치 및 태도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인구 변천 영역에서 각 교과서마다 인구 관련 요소들이 서술되어지는 내용과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인구 관련 가치관 형성과 관련이 깊은 가족 및 양성 평등 영역의 기술 내용과 현황도 살펴볼 것이다.

인구 및 관련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분석 항목의 준거는 <표 2>와 같으며, 각 교과서 별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그 내용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려고 한다.

〈표 2〉 인구 및 관련 내용의 분석 내용의 준거

영역	소주제	분석 내용의 준거
인구 및 관련 영역	인구 변천	인구 변천
		인구 증가
		인구 감소
		합계출산율(출산율)
		고령화 사회
		인구 부양력(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가족계획사업
		인구 문제
		인구 문제의 대책
	가족	가족의 형태
		자녀(양육)관
		가족 제도의 변화
		가족 문제 양상
		가족 문제 해결방안
	양성 평등	성 역할 분화
		가사노동
		양성 평등 양상
		양성 평등 구현 방안

IV. 사회·문화 교과서의 인구와 관련 내용 분석

1. ‘인구 변천’ 영역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는 사회 변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로 ‘인구 변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인구 교육 차원에서 인구 관련 지식의 내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각 교과서별로 인구 변천 내의 하위 항목들의 분포 정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사회·문화 교과서 내 인구 변천 내용의 분포

영역	소주제	분석 내용	교과서		
			A	B	C
인구 내용 영역	인구 변천	① 인구 변천 과정	•	•	•
		② 인구 증가	•	•	•
		③ 인구 감소	•	•	•
		④ 합계출산율(출산율)	•	•	•
		⑤ 고령화 사회	•	•	•
		⑥ 인구 부양력(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	•	•
		⑦ 가족계획사업			•
		⑧ 인구 문제	•	•	•
		⑨ 인구 문제의 대책	•	•	•

인구 변천 과정, 인구 증가, 인구 감소, 합계출산율(출산율), 고령화 사회, 인구 부양력(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인구 문제, 인구 문제의 대책 요소는 A, B, C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지만, 가족계획사업은 C 교과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가. 인구 변천 과정

먼저, 인구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A, B 교과서에서는 인구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인구 변화의 단계별 추이 과정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인구 변천 양상으로 1단계 다산 다사형, 2단계 다산 감사형, 3단계 감산 소사형, 4단계 소산 소사형을 제시하여 최근 노년층의 증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천의 접근 방식은 우리나라나 외국의 인구 변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게 하고, 근대화 초기에서 현대로 갈수록 인구 분포 경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파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세계의 인구 변천 과정의 거시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B 교과서에서는 3단계의 출생률이 감소한 이유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와 가족계획을 들고 있다. 4단계에서는 출생률 및 사망률이 모두 낮아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단계에 속한다고 기술하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 현상도 선진국형의 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C 교과서에서는 인구 변천 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변화를 소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입 활동〉의 삽화에서 과거의 출산 양상에서는 자녀가 6명이 그려져 있는 반면, 현재의 출산 양상에서는 1명이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과 과거의 출산율을 대비시켜 이해시키고자 하고 있다.

C 교과서의 인구 변천 과정 영역을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 증가 현상과 정부의 산

아 제한 정책을 표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1가구당 자녀수가 당시 6명인 최고 수준을 기록할 때 정부는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를 통해 출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고 한다.

나. 인구 증가

B 교과서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전 세계 인구 추이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활동8>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증가 및 감소 현상을 나타낸 그래프를 분석하여 급격한 인구 증가 시기의 그 원인을 파악하게 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문제와 관련된 변화 흐름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게 하고 있다. 이는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요소가 ‘인구 변천’이므로 이러한 세계적, 국가적 인구 변화 과정의 거시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2차 대전 이후 의학 기술 발전과 환경 개선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C 교과서에서는 후진국의 인구 문제를 언급하며 높은 출산율로 인구가 증가하여 여러 가지 자원 부족,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야기한다고 기술했다.

이 때 A, B, C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인구 증가는 식량이나 자원 부족 문제를 초래한다고 기술하여 인구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달하고 있었다.

다. 인구 감소

인구 감소 현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제시되고 있다. A 교과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부각시키며 인구 감소의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B 교과서에서는 선진국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가치관 변화에 따른 출생률 감소로 인구가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C 교과서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져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심화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국, A, B, C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야기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주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합계출산율(출산율)

A, B 교과서에서는 여러 나라의 시대별,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변화 과정을 예측하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숫자가 크게 급감한 수치를 보여주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C 교과서에서는 정부의 산아 제한 정책, 경제 성장, 출산 관념 변화, 의학 발달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점차 줄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A, B 교과서와 달리 정부의 산아 제한 정책과 우리나라의 자녀수 축소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여 인구 감소 경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부의 가족계획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C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는 2010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혼 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약 60% 내외가 2명으로 응답했으며, 약 24% 내외가 1명으로 응답했다. 출산 후 고민으로 남자는 양육비용 걱정이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육아 시간과 노력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다.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남자는 자녀 양육비를 가장 크게 꼽았으나 여자는 육아 지원 기능 미흡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보육 기관의 미비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양육비 부담과 육아 보육 환경의 미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고령화 사회

A 교과서에서는 ‘고령화 사회’라는 제목으로 길게 늘어선 노년층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조시키고 있다. 고령화 원인으로 의료 기술 발달, 출산율 저하 등을 들고 있다. B 교과서에서는 선진국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며 유럽의 노인들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C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서는 ‘빈곤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가난한 노인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읽기 자료〉에서는 무연 사회, 고독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심화 활동〉에서는 “고령 사회,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지하철 경로석에 가득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미래의 우리 사회의 인구 변화를 예상하게 하고 있다. 결국 A, B, C 교과서는 고령화 사회를 복지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부담 요인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인구 부양력(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A 교과서 〈활동하기 5〉에서는 여러 대륙의 노인 부양비의 변화를 예측하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대륙보다 훨씬 더 많은 노인 부양비를 지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B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 부양비 추이를 제시하여 2036년에는 경제활동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삽화로 제시하고 있다.

C 교과서에서는 청·장년층의 인구 감소 문제로 경제활동인구의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심화된다고 하며 생산 효율성 저하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노인 복지 비용이 확대되어 정부 부담이 커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와 노년 인구의 증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 가족계획사업

C 교과서에서는 A, B 교과서와 달리 정부의 과거 인구 조절 정책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60년대에는 68년 가족계획을 홍보하고 두 자녀의 그림을 그려 넣었다. 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홍보를 하고 있다. 80년대에는 “둘도 많다”라는 표어를 넣어 산아제한을 홍보하고 있다. 80년대까지 정부(대한가족계획협회)가 나서서 인구 정책에 개입하려고 노력한 변천사를 포스터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구 조절에 관여한 정부의 영향력을 통해 인구 교육이 국가적 시책이 되어왔음을 제시하고 있다.

아. 인구 문제

A 교과서에서는 인구 문제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90년대 이후 직면한 이러한 인구 문제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부각시키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이혼율 증가, 독신 증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사회의 유지와 부양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령화는 의료 기술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령화는 산업 인구 감소, 노인 부양비 증가, 세대 간 갈등, 독거 노인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A 교과서, p. 226).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이혼율 증가, 독신 증가, 자녀 양육비 증가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의 가족계획정책에 따라 현재의 소자녀 가치관이 형성되어 온 측면은 누락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을 잡아라’는 문구를 통해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B 교과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로 최근 의학 기술 및 환경 개선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식량 및 자원 부족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수명 연장,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가치관 변화 등으로 출생률이 감소하여 인구의 고령화로 이어져 노인 부양비와 사회 복지 비용 증가를 가져오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C 교과서에서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문제점과 후진국의 높은 출산율에 의한 인구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의 소자녀 출산 양상을 삽화로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인구의 위기에 대하여 A, B, C 교과서의 접근 방식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사망률은 낮아져 고령화 속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현상을 고령화 사

회 진입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사회적 부담 증대로 이어져 미래 사회의 문제 사태임을 일깨우고자 하고 있었다. 오늘날 출산 장려의 인구 정책의 필요성을 미래의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이유를 들며 제기하고 있었다.

자. 인구 문제의 대책

저출산이 교과서에 기술한 대로 고령화 사회의 주요 원인이며 미래 사회의 부담을 가져오는 위협 요인이라면 이러한 원인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A, B, C 교과서에서의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려면 사회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비용, 시설, 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양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사회가 부담을 높여나가야 하며, 직장 여성이 출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승진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과도한 교육비도 출산 기피 요인이 되므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대비, 노인 인력 활용, 노인 복지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 보장 제도를 정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서도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를 개발하여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C 교과서 <자료 3>에서는 “신노인층은 자신을 위해 많이 투자한다.”라는 제목으로 신노년층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노인층과 달라진 신노인층의 삶의 태도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구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A 교과서 <10분 토론>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에 대한 찬·반의 견해를 표현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다.

대책1: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대책2: 고령자가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은 청년층의 실업을 더 증가시킨다.

(A 교과서, p. 227)

B 교과서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년 연장 정책과 임금 피크제 등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이 정책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고등 사고력 기르기>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관련 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 토론하게 하여 인구 문제의 대책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인구 교육 관련한 이러한 토론 부분이 교과서 내에 많이 제공되지 않았기에 인구 교육을 위한 차원에서 가치 판단 및 의사결정의 경험을 하도록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A, B, C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현상과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장려 노력은 이제 더 이상 개인 가족의 노력 차원보다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출현하는 인구 문제에 대해 가족 내 구성원이 될 자신은 어떤 노력과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략되고 있어, 오늘날 사회에서 삶의 질과 관련되고 있는 출산의 문제는 가족 외부적 현상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는 미래에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이 크게 부상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적극적이지 않고 단지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노인 부양비용을 감소시켜 사회의 안전망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이 노인 단계에서 누려야 할 복지나 노인이 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가족’ 영역

인구 관련 가치관 형성의 중요한 내용 요소인 가족 내용의 항목들을 살펴보았는데, 각 교과서별 분포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족의 형태, 가족 제도의 변화, 가족 문제 양상, 가족 문제 해결방안은 A, B, C 교과서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관은 A 교과서에서 언급되고 있었다.

<표 4> 사회·문화 교과서 내 가족 제도 내용의 분포

영역	소주제	분석 내용	교과서		
			A	B	C
인구 관련 영역	가족	① 가족의 형태	•	•	•
		② 자녀(양육)관	•		
		③ 가족 제도의 변화	•	•	•
		④ 가족 문제 양상	•	•	•
		⑤ 가족 문제 해결방안	•	•	•

먼저,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족이란 혈연, 혼인, 입양의 관계로 맺어진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을 의미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출생과 함께 가족의 구성원이 되며 혼인 후 새로운 자녀를 두어 새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고 제시하며 결혼 외에 출생의 요소를 부각시켜 가족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기능 부분을 살펴보면, A, B, C 교과서는 가족의 기능을 모두 유사하게 제시하고 있

는데,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양육과 보호, 사회화 등으로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녀의 출산을 통해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충원하는 것을 첫 번째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가족의 단원이 인구 교육을 위한 근본이 되는 속성을 갖는다. 나아가 가족은 어린이와 노인 등 가족 구성원을 양육 및 부양하는 등 사회 보장 기능을 담당해 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 가족의 형태

A, B, C 교과서는 가족의 형태를 확대가족과 핵가족으로 분류한 후 장, 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확대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양육과 보호에 참여하지만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여성의 희생이 크고 가문의 존속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화로 인해 일터가 분리되고 가족의 이동이 잦아 핵가족이 보편적이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민주적, 수평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나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 해체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A 교과서에서는 가족의 형태 중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확대가족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농촌에서는 노인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관련 내용이나 관련 사진에서 읽혀지는 이미지는 고독감, 소외감이다.

이처럼 가족 양육에는 확대가족이 편리하지만 가부장제 질서로 인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한 핵가족은 구성원 간의 관계가 비교적 수평적이지만,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 다자녀 출산이 쉽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 자녀(양육)관

A 교과서에서는 교환론의 입장에서 자녀관을 기술하고 있다. 자녀의 출산과 자녀 수의 선택에서 볼 때, 교환론에서는 자녀로부터 받게 될 편익이 감소하여 교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본다. 자녀 부양 과정에서 비용 가치가 증대하고, 자기만족 위주의 가치관 정립으로, 출산으로 인한 보상 가치가 감소하고, 가족 내 불평등한 분배 등으로 출산이 주는 교환 자원의 가치가 감소하여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유종열, 2010). 오늘날 이러한 교환론의 입장은 저출산 현상을 해석하는 하나의 유용한 입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가족 제도의 변화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살펴보면, A 교과서에서 독신 가족, 이혼 가족 및 재혼 가족 외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동시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가족 형태는 우리 사회의 출산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A, B, C 교과서에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전체적인 인구 수의 감소 경향을 파악하게 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경향, 부부 가구의 증가 경향, 1인 가구의 대폭 상승 경향,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의 증가 경향, 조혼인율(1천 명당 혼인 건수)의 감소 경향 등의 근거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의 특성을 도출하고 인구 경향의 변화 과정도 추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라. 가족 문제 양상

A 교과서의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족 문제 바라보기’란을 보면, 맞벌이 부부가 3명의 다자녀를 갖는 게 꿈이었으나 양육비용의 부담이나 맞벌이로 인한 육아 부담 때문에 이 꿈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출산 문제를 사회 문제로 재조명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사회 문제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사회와 정부가 인구 증가를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제시한다.

B 교과서에서는 가족 문제란 자녀 출산, 양육과 보호, 사회화, 경제적 기능, 정서적 안정 계공 등의 기능들 중 어떤 것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족 내적 요인 외에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자녀 양육 문제, 저출산 문제, 노부모 부양 문제, 이혼 문제, 가족 해체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족 문제의 의미를 규정하게 되면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가족 문제로 규정될 소지가 있어 부부 가족 등 소수자의 가족 입장이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또한 가족의 빈곤 문제가 자녀 양육 문제, 노인 부양 문제, 저출산, 가족 해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서술하여, 저출산 현상이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다.

C 교과서에서는 가족 문제의 양상으로 가족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관계가 느슨해지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이혼이 늘어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노인 문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의 보편적 등장과 이에 따른 가족 내의 상황의 변화를 가족 문제로 포착하고 있어 ‘가족 문제’의 개념 규정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가족 유형의 변화에 의한 가족 해체 등을 가족의 위기로 진단하기보다는, 가족 진보론적 입장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현대 가족의 다양한 기능적 변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남순현, 2004).

마. 가족 문제 해결방안

가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A 교과서에서는 교환론의 입장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제공하여 출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족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가족 내부의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사회 전반적인 문화, 법, 제도의 변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B, C 교과서에서는 갈등론의 입장에서 보면 가부장제의 문제점으로 인해 가족 문제가 야기되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기술하며 남녀 간 평등 의식과 민주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양성 평등 의식의 문제는 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면서 인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가족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문제로 규정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전형적 가족의 이미지에 비해 달라지는 가족 형태가 인구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형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양성 평등’ 영역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가족 구성원의 양성 평등 관점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이에 따른 육아휴직제나 보육 시설, 자녀 비용 경감, 가족 친화적 기업 정책 등이 보완되지 않으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 평등 정책을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미혜, 2006).

그리하여 ‘양성 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는 인구 관련 교육의 주요한 주제가 된다. 양성 평등 내용의 각 요소별 분포 결과는 <표 5>와 같은데, 성역할 분화, 양성 평등 양상, 양성 평등 구현 방안은 모든 교과서에서 나타나며, 가사 노동의 부분은 B, C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표 5> 사회·문화 교과서 내 양성 평등 내용의 분포

영역	소주제	분석 내용	교과서		
			A	B	C
인구 관련 영역	양성 평등	① 성 역할 분화	•	•	•
		② 가사 노동		•	•
		③ 양성 평등 양상	•	•	•
		④ 양성 평등 구현 방안	•	•	•

가. 성 역할 분화

A 교과서에서는 가족 내에서 자녀 양육 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녀 차별적 자녀 양육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가정에서 남자아이는 공격적이고 독립적으로 키우고, 여자아이는 온순하고 의존적으로 기른다. 그리고 고등교육 기회에서의 남녀 불평등도 존재한다(A 교과서, p. 153).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가정 내에서 성차별 사회화 경향이 있으며, 고등교육 기회 제공 차원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B 교과서에서는 성 불평등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사회화라고 제시하고 있다. 여아에게는 여성의 역할에 부여된 사회적 기대를, 남아에게는 남성의 역할에 부여된 사회적 기대를 학습시키며 요구한다는 것이다.

C 교과서에서는 남성다운 행동과 여성다운 행동 유형의 고정관념을 삽화로 제시하고 있다. <탐구 활동>에서는 TV에 비춰진 여성의 성 역할을 다음의 사례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성 역할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여성을 재현하고 있다.”, “끊임없이 제시되는 여성상은 현모양처 형이다.”, “최근의 드라마에서 비추어지는 또 다른 여성상은 슈퍼우먼 형이다. 직장 과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직장 상사로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우먼이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A, B, C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성역할 구분과 차별적 사회화가 존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 가사 노동

B 교과서에서는 <활동6>에서 ‘맞벌이 남성 가사 노동 시간, 여성의 5분의 1’이라는 제목 하에 남녀 간 가사 노동의 불평등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C 교과서에서도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보다 아내의 가사 노동 시간이 약 2시간 38분이 많음을 그림으로 제시하며 가정의 가사 노동의 불평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B, C 교과서에서는 가족 내에 남녀 간 가사 노동의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며 양성 평등의 가족 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 양성 평등 양상

A 교과서에서는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여성의 취업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여성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 B 교과서에서는 성 불평등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양성 차별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A 교과서에서는 양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중등 이상 교육이수 비율, 국회의원 구성 비율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으며, B 교과서에서도 13.7%를 차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제시하여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C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 양성 간 임금 격차와 고용률을 제시하며 불평등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탐구 활동>에서는 순위별 성 불평등 생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순위를 보면, 1위-명절의 남녀 노동의 불균형, 2위-아들과 딸의 차별, 3위-직장 내 성희롱, 4위-직장 내 성 역할 구별, 5위-직원 선발에서 여성 차별, 6위-대중매체의 여성 상품화 등이다.

이와 같은 성 불평등 현상의 기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성 불평등 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양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양성 평등 구현 방안

성 불평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A, B, C 교과서에서는 여성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법적 제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A 교과서의 경우 <활동하기 2>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음을 안내하고 있다. 공보육 시설 확대와 육아 휴직 제도의 개선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하고 남성이 가족 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가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직장에서의 성 불평등의 해소 방안과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B 교과서의 경우 양성 평등의 구현 방안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 외에도 정치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학교에서 성 평등 이념 교육,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 성희롱 예방 교육, 대중매체의 성 평등 의식 확산, 성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 탈피, 문화적 편견에 대한 비판 의식 등 생활 속에서 노력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성 고정 관념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형을 갖고 노는 남자 아이, 여성 경찰 특공대원 사진, 숲 속의 잠자는 왕자 이야기 등을 제시하는 등 학습자의 기존의 성별 스테레오타입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가족 문제나 출산과 관련된 인구 관련 영역에서도 집필자의 인식과 가치관이 교과서 기술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의 성(性)이라는 존재 조건이 성차별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도 있다(최정윤, 2006). 집필자의 성 인지 감수성이 이러한 고정 관념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기술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C 교과서도 B 교과서와 유사하게 보건복지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의 내용을 표로 제시하며 육아 휴직을 권장하는 보완된 내용과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제시하고 있다. <읽기 자료>에서는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 생각들'을 제시하여 집안 살림은 가족이 분담하고, 양성 평등 의식을 높여나가고, 출산율의 중요성 때문에 남성에게도 모성 보호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제안 등을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A, B, C 교과서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양성 평등 의식 함양이나 출산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성 평등 영역에서는 현실의 불평등한 모습을 보여주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양성 평등 의식이 인구 교육과 출산 및 가족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성 불평등한 현실의 개선 방안이 적절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교과서 내 인구와 관련 영역의 종합적 고찰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타난 인구 변천, 가족, 양성 평등 영역을 고찰한 결과에 기초하여 인구와 관련된 내용 영역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인구 교육을 실시할 때 설정하는 범위의 수준을 보면, 개인적, 가정의 차원보다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인구 교육의 수준은 인구 교육의 내용을 무엇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 인구 교육에서 지향하는 수준(세계, 국가와 사회, 개인과 가정 등), 인구 교육에서 국가의 입장과 개별 가정의 입장에 따른 가치 선택의 문제 등 다차원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박윤경, 2012).

현재 사회·문화 교과서의 인구 및 관련 내용은 거시적으로 세계, 국가 및 사회의 입장에서의 인구 변화의 과정과 가족의 유형에 따른 인구 변화의 영향을 담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내재된 성 불평등 양상을 드러내고, 양성 평등 실현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원의 접근에서 볼 때, 가족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가족계획을 어떻게 실시할지 등 가정의 설계나 개인 학습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기술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인구 교육과 관련된 가치 교육 측면을 보면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태도 영역보다는 인구 내용과 관련된 지식 위주의 접근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인구 교육 관련 UNESCO(1978a, p. 37) 자료에 의하면 인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가치 배제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구 관련 내용을 가치 공정의 입장에서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명료화하여 자신의 입장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교육은 단순히 출생 통제나 피임 기법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대안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적, 심리적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이나 사회의 일반적 복지를 위해, 인구 통제에 깔려있는 가치들이 토론이 될 수 있고, 정보를 잘 파악한 가운데 책임 있는 태도로 결혼이나 출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구 교육이 현존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과목 안에서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UNESCO, 1978b).

Moore(2008, pp. 158-159)의 사회과의 인구 교육 주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 통제 방

법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 '가족계획에 대한 정부의 관여의 필요성', '대가족의 가치' 등 인구 교육 내용들을 보면 인구 문제가 가치 지향적인 측면을 분명히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인구 교육은 가치 관련 주제이므로 특히 인구 증가에 대한 찬반 문제를 다루면서 가치명료화가 이루어지도록 통합된 훈련 과정을 수업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측면보다는 세계적, 국가적 규모의 인구 변천 과정 등 양적 인구 지식 위주의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구 감소의 위기감을 위협적으로 제시하여 국가의 인구 통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정작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가정의 의사결정이나 미래의 가정을 이루게 될 청소년들의 가치 판단 과정 등은 교과서 기술 과정에 제대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적 위기감에 동참을 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해야 할 것인지, 개별 가정의 삶의 복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 뒤 가족계획을 세워야 할지 등 열린 의사결정과 가치명료화를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와 관련 영역의 분석 단원이 된 인구 변천, 가족 제도, 성 불평등 단원들 간의 인구 교육 측면에서의 연결성을 고려해 볼 때, 3주제가 인구 교육의 목적으로 통합되기보다는 상호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구 변천 단원은 인구 변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선진국의 인구 감소 경향을 드러내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위기감을 부각시켜 미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인구 변천 단원은 인구 변동과 그에 따른 결과 예상 등의 인구 지식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가치 판단 과정은 거의 중립적으로 설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 제도의 단원은 개별 가정의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과는 다소 거리가 먼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 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핵가족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 가족 형태에서는 자녀 양육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3세대 가족과 핵가족을 비교한 연구에서 3세대 가족은 가족 관계에서 만족하고 있으며, 기존의 부정적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김혜경, 2006), 현재 교과서에서는 확대가족에 대한 부정적 기술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성 불평등 단원은 맞벌이 부부의 가사 노동 불균형의 사례나 가정과 직장에서의 남녀 불평등 사례 등의 자료를 담고 있어, 아직도 양성 평등이 실현되지 못한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1인가구를 지향하거나 다자녀 출산에 대해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결국 국가의 의도는 출산율을 높여 미래의 국가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으나, 정작 교과서 내 가족의 형태나 양성 평등 내용면에서는 다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회 환경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에서 국가의 필요와 개별 가정의 필요가 상이한 국면이 발견된다. 현실은 자녀 양육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국가에서는 출산율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교과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간극에 대해 학습자들이 토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과서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의 해결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나 가정보다는 국가와 사회에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었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변화 현상을 인구 문제화함으로써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소자녀관이 확산되어 가는 즈음에 사회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 복지주의 관점에서 가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족은 구성원을 낳고 기르면서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과 책임은 본질적으로 개별 가족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양육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일정한 지원을 국가와 사회에게 요구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복지를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게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개별 가정의 책임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 사회가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사회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암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인들의 무력감, 소외, 부양 부담 등과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의 위협을 알리는 많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노인들이 미래 사회의 부담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해 학습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롭게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교과서에서 신노년층의 생활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노인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내용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맞이하게 될 고령화 사회의 노년을 건설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는 인구 교육의 차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VI. 결론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 교육은 주로 출산율을 통제하여 인구를 감소시키는 데 치중해 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여 소자녀관을 정립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의식을 다자녀관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사회 변화에 따라 소자녀관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고, 아울러 맞벌이 가정 증가, 양육비 증가, 핵가족 증가 등 사회 환경도 소자녀관이 더 적절하도록 함께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국가와 사회는 미래 사회의 복지를 고려하여 다시 다자녀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위협적인 각종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잠정적으로 이에 협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인구와 관련된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인구의 양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사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김병국 외, 2011, p. 291). 이러한 양면적 속성 때문에 개인에게 결혼과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구성원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고, 양성 평등적 가족 문화를 조성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양성 평등 문화와 가족 문화가 정립되어 나갈 때 건전한 가족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인구 계획 의도는 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현 실정 때문에 인구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사회·문화 교과서에서의 인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 변천 영역에서는 선진국의 소산소사형의 그래프를 제시하며 합계출산율 감소와 고령 사회의 위기를 부각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미래 사회의 복지의 위기를 강조하며 출산율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구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미래의 성인이 될 학습자들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인구 관련 정보 제공이 학생들의 내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서 의사결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 출산과 관계가 깊은 가족의 영역을 보면, 가족의 유형이 확대가족과 핵가족으로 구분되어 다소 획일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현대 사회의 가족 유형이 다자녀 양육에 부적합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출산율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도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 구조 속에서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내릴 수 있는 개방적이고 평등한 가족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유형의 변화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가족 및 직장 문화와 관련이 깊은 양성 평등 부분을 보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출산의 문제는 양성 평등한 가족 문화 속에서 더욱 개선될 여지가 높다. 가족이나 양성 평등 영역의 주제는 무엇보다 인구 교육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양성 평등 단원에서 불평등 현실을 독자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넘어서 양성 평등한 현실을 구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교육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된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합계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분포 변화 등의 통계 자료를 제시해 주는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갖는다고 본다. 개인과 같은 구성원이 가족 문화를 건전하게 가꾸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현상의 개선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구 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수업의 과정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구 문제를 사회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습자 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지 합리적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각각의 단위 설계 속에서 구성되어진 인구 변천, 가족 제도, 성 불평등 단원을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고유의 분절적인 각각의 단위상의 설계 목표로 인해 현재의 구성에서는 인구 교육을

위한 총체적인 목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 학생들이 인구 문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인구 및 관련 내용을 적절히 연결하여 일관성 있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구 교육을 위해서는 관련 교과(예: 사회과) 내 적절한 대단원을 설정하여 인구 및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인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인구 관련 정보 위주로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인구 조절에 관여할 수 있는 주제로 학습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과 가치명료화 활동이 연계된 인구 교육 커리큘럼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인구 관련 지식 영역 외에 인구 조절 등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가족, 양성 평등, 환경, 복지 등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인구 교육의 종합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운선(2010). 제7차 사회·문화 교과서의 가족 단위에 대한 비판적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 49(2), 33-52.
- 구정화, 설동훈, 박윤경, 주은옥, 설규주(2012).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천재교육.
- 권태환, 김두섭(2008).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출판부.
- 김병국, 전세경(2011).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의 관점에서 본 ‘가족’에 대한 초등교과교육의 실태 및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4(4), 271-295.
- 김영순, 정동일, 박인옥, 박한철, 박서현(2012).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교학사.
- 김진한(2007). 고령화 사회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노인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0(4), 1-24.
- 김태현, 권상수, 권부경(2001). 제4차 교육과정 이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인구교육내용 변화 비교. **사회과교육연구**, 8, 133-155.
- 김태현, 박강용, 권부경, 강정애, 이수영(2006).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는 중학교 교과서의 인구 관련 내용 개선 방향. **교육과정평가연구**, 9(2), 231-260.
- 김태현(2008).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 **인구교육**, 1(1), 1-20.
- 김향숙, 박부진(2009).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의 고찰. **아동가족치료연구**, 7, 1-13.
- 김혜경(2006). 3세대가족과 핵가족의 각 세대별 인구사회학적 부양관련 태도 및 가족관계적 특성의 차이. **사회복지정책**, 27, 55-77.
- 남순현(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10(2), 1-15.
- 박미혜(2006).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2(2), 55-67.
- 박선웅, 모경환, 김재준, 나혜영, 조용주, 이현진(2012).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금성출판사.
- 박윤경(2012).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인구 교육 내용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2), 1-18.
- 서재천(2005). 초등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내용의 변천 고찰. **초등사회과교육**, 17(2), 3-25.
- 설규주(2013). 사회 교과서 속 저출산·고령화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2009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2(3), 31-50.
- 유종열(2010).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 이론적 접근-교환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4), 33-47.
- 유종열(2012). 초·중등 교사의 인구교육 실천 양상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2(3), 339-362.
- 윤인경(2007).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실과교육 내용 체계화에 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0(1), 127-147.

- 윤인경(2011). 학교 인구 교육의 내용 분석-도덕, 사회, 기술·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인구교육**, 4(1), 19-39.
- 이미란, 윤인경(2008). 제7차 교육과정 도덕, 사회, 실과(기술·가정) 교과 내용에 제시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인구교육 내용 분석. **인구교육**, 1(1), 133-152.
- 이상미(2011). 다양한 인구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올바른 인구 가치관 형성. **인구교육**, 4(1), 93-124.
- 이현지(2005). 사회·문화 교과서의 가족문화 영역에 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53(1), 301-318.
- 임인명(2011). 중학교 사회 교과서 인구영역의 내용 변화 분석. **인구교육**, 4(1), 41-63.
- 정순돌, 박현주, 김보경(2012). ‘고령화 사회’에 관한 인식과 대책-신문 기사를 통해 본 동향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3(4), 203-224.
- 조영태, 심은영(2012). 사회 인구 교육, 실태와 과제. **인구교육**, 5, 91-108.
- 최만식, 조용하(2012). ‘고령화 교육’ 측면에서의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분석. **사회과교육**, 51(4), 279-296.
- 최정윤(2006). 사회 교과서 집필자의 성차별적 태도가 교과서 내용의 성차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10학년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8(2), 161-203.
- 최현실(2004). 한국가족의 변화 요인과 양상에 따른 가족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 **사회과학연구**, 18, 1-16.
- 한세롬(2011).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 사회과 인구교육 내용체계. **인구교육**, 4(2), 19-41.
- Moore, J. R. (2008). Numbers, Numbers, Numbers: The Role of Population Studies in Social Studies and Global Education, *Social Studies*. Jul/Aug 2008, 99(4). 155-160.
- Pandey, J. L. (1999). Population Education, in Khan, R. S.(ed.)(1999). *Population Education: Content and Methodology*, New Delhi: India. 1-16.
- Yadav, S. B. (1999). Curriculum development in Population Education, in Khan, R. S.(ed.)(1999). *Population Education: Content and Methodology*, New Delhi: India. 62-73.
- UNESCO(1978a). *Population Education: A Contemporary concern*, ISCOMPE Education Studies Documents No. 28, Paris: UNESCO.
- UNESCO(1978b). *Population Education: Nature, goal and role*, Bangkok: UNESCO.

· 논문접수 : 2013-12-25/ 수정본접수 : 2014-01-29/ 게재승인 : 2014-02-14

ABSTRACT

An analysis on population education and related topics in ‘Society and Culture’ textbooks of high school

Il-Nam Ok

(Associate Professor, Seowon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nalysis on population education and related topics in ‘Society and Culture’ textbooks of high school. I analyzed 3 kinds of textbooks published in 2012 by 2009 revised curriculum. The small units of them are population change, family institution, and gender inequality.

The results follow as below. There is not an independent unit for population education, so it is not unified according to same goal of population education. For example, the small unit of population change adjusts the focus on the change of world, national population, and on Korean crises of low fertility & an aging society. The small unit of family institution introduces nuclear family phenomenon and expresses concern about childbirth and bringing up children. The small unit of gender inequality delineates inequable reality of Korean society, it causes the burden of marriage and childbirth.

Taken as level of population education, macroscopic, national approach appeared rather than personal, familial decision-making or value clarification approach. Also we need to approach an aging society from a positive viewpoint to prepare for it.

Key Words : ‘Society and Culture’ textbooks, population education, population change, family institution, gender equality

